신태용호 7년7개월만에 일본 격파…월드컵 자신감 UP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일본 4-1 꺾고 대회 2연패

김신욱·정우영·염기훈 연속골

16일 오후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시상식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일본을 4-1로 이기며 2승 1무로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이번 한일전 승리는 2764일째 이어온 무승의 고리를 끊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축구가 역대 78번째 한일전을 통쾌한 '도쿄 대첩'으로 장식하고 동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최종 3차전에서 경기 초반 선제골을 내주고도 김신욱(전북)의 멀티골과 정우영(충칭)과 염기훈(수원)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앞세워 '숙적' 일본을 4-1로 물리쳤다.

이로써 2승 1무를 기록한 한국은 2015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우승 상금 2억8000만원을 챙겼다. 한국의 이 대회 우승은 2003년 원년 대회와 2008년, 2015년 대회에 이어 통산 네 번째다. 반면 2연승 중이던 일본은 안방에서 '역전 우승'을 헌납하며 4년 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한국은 또 일본과의 A매치 상대전적에서 41승 23무 14패의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건 2010년 5월 24일 이후 7년 7개월 만이다. 또 한국이 일본에 세 골 차로 이긴 건 1972년 메르데카컵 준결승 3-0 승리 이후 무려 45년 만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맞대결에서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 행진 중이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6개월여 앞둔 신태용호는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자신감을 충전하고 월드컵 본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태용 감독은 한일전에 이근호(강원)와 김신욱을 공격 쌍두마차로 내세운 4-4-2 전형을 들고 나왔다.

좌우 날개에 김민우(수원)와 이재성(전북) 배치되고, 주세종(서울), 정우영(충칭)이 중앙 미드필더 듀오로 호흡을 맞췄다. 포백 수비진은 왼쪽부터 김진수(전북)-윤영선(상무)-장현수(FC도쿄)-고요한(서울)이 서고,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대구)가 꼈다.

출발은 불안했다. 한국은 킥오프 2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는 이토 준야를 수비하던 장현수가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는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키커로 나선 고바유시 유가 왼쪽 골문으로 침착하게 꽂아넣어 한국은 0-1로 뒤졌다.

선제골을 내준 태극전사들이 거센 반격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며 승부의 흐름을 바꿨다. 전반 13분 김진수가 왼쪽 측면에서 빨랫줄 같은 크로스를 올려주자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김신욱은 헤딩으로 공의 방향을 틀었다.

전반 23분에는 정우영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까지 터졌다. 한국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상대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정우영이 강력한 오른발 무회전 슈팅을 날렸다. 공은 수비벽 사이로 날아가 그대로 일본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을 꿰뚫었다. 정우영이 A매치 데뷔 22경기 만에 뽑은 첫 골.

2-1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일본 문전을 쉴 새 없이 두드렸고, 김신욱이 다시 한 번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35분 이재성이 상대 문전에서 수비수들을 제치고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한 김신욱에게 공을 찔러줬다. 김신욱은 침착하게 왼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다.

태극전사들의 파상공세는 후반에도 멈추지 않았다. 신태용 감독은 후반 22분 무릎이 좋지 않은 이근호를 빼고 '왼발 달인' 염기훈을 교체 투입해 변화를 줬다.

염기훈의 교체 카드는 적중했고, 염기훈이 왼발로 마법을 부렸다. 염기훈은 후반 2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따낸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서 왼발로 낮게 깔아찼다. 공이 상대 발끝을 스치면서 살짝 굴절된 후 그대로 골그물을 흔들었다.

한국은 후반 39분 가와마타 겐고에게 헤딩슛을 허용했지만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넘기고 3점 차 승리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최종 3차전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염기훈이 왼발 프리킥으로 네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7년여전 박지성의 '산책 세리머니'를 재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중동서 '가상 스웨덴' 평가전

신태용호 월드컵 준비 박차

아시아권 위주로 수비 조직력 강화…3월 해외파 소집

7년 7개월 이어진 한일전 '무승 징크스'를 대승으로 완전히 깨뜨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동아시아 정상을 재확인하고 돌아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을 마치고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팀은 지난달 27일 울산에서 시작된 조기소집부터 20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러시아 월드컵의 해인 2018년을 기약했다.

대회를 앞두고 6일 도쿄에 입성한 대표팀은 8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에서 2승 1무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1차전 중국과 2-2 무승부로 불안하게 출발했고, 2차전은 북한의 자책골로 쑥스러운 1-0 승리를 거둬 순탄치 않은 길을 갔다.

그러나 전날 2연승을 달리던 일본과의 최종 3차전에서 4골을 폭발하며 통쾌한 4-1 역전승을 거둬 '반전 드라마'로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다.

2010년 5월 박지성의 '사이타마 산책'으로 유명한 친선경기 이후 5경기에서 일본을 이기지 못하다 2700여 일 만에 도쿄에서 '산책 세리머니'를 재현해내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겼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큰 자신감을 충전하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과제도 안은 만큼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장 하루만 쉰 뒤 19일 유럽으로 떠나 최근 소속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직접 점검하러 나선다.

신 감독은 권창훈(디종), 석현준(트루아)이 뛰는 프랑스,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있는 오스트리아, 손흥민(토트넘)을 볼 수 있는 잉글랜드 등으로 향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이후 1월 중동에서 '가상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겸한 전지훈련을 통해 월드컵의 해를 시작한다. 신 감독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등을 후보지로 고려 중이다.

다만 1월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데이가 없어 K리거와 일본, 중국에서 뛰는 아시아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FIFA A매치 데이 기간이다. 해외파 전원을 소집해 러시아월드컵 '모의고사'를 치르게 된다. 대표팀은 내년 6월 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성한다. /연합뉴스

레알, 클럽 월드컵 2연패…호날두 결승골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간판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워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셰이크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후반 8분에 나온 호날두의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남미 챔피언 그레미우(브라질)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대회 2연패 위업을 이뤘다. 통산 세 번째 우승에 성공해 최다 우승 부문에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알자리라(UAE)와의 준결승에서 여섯 번째 골을 넣으며 이 대회 신기록을 작성한 호날두는 한 골을 보태 최다 골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레알은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를 공격 쌍두마차로 내세웠지만 몇 차례 기회가 상대 수비에 막혀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전반 11분 벤제마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왼발 슈팅은 수비벽에 막혔고, 전반 17분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받은 호날두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고, 호날두가 후반 8분 페널티 지역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직접 키커로 나선 호날두는 골문 왼쪽 구석을 꿰뚫었다.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던졌지만 골문 앞에서 한 번 바닥을 튀긴 공은 빠르게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후 실점하지 않고 승리를 지켜냈다. 결승골의 주인공인 호날두는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셰이크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남미 챔피언 그레미우(브라질)를 1-0으로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5경기 연속골 불발

토트넘, 맨시티에 1-4 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막강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5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는 데 실패했다. 맨시티는 토트넘에 4-1 완승을 거두며 16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17일 열린 2017-2018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했다.

해리 케인과의 투톱과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의 2선 공격수를 오가며 활발하게 공격에 나섰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후반 32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됐다.

이날 개인 최다인 5경기 연속 골을 노려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손흥민은 시즌 9호 골의 기회를 다음 주 번리와의 경기로 미루게 됐다.

맨시티는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 일카이 귄도간이 헤딩 선제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했다. 맨시티는 전반에만 10개의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다. 반면 토트넘은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후반 들어 토트넘은 반격을 시도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9분 케인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후반 18분 손흥민이 왼발 중거리 슛으로 첫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겼다.

토트넘이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는 사이 후반 24분 오히려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가 역습 상황에서 추가 골을 뽑아내며 토트넘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후반 35분에는 스털링이 쐐기골까지 뽑아냈다. 후반 종료 직전 토트넘 수비진의 실책까지 나오며 스털링이 멀티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시간 에릭센의 만회골로 간신히 영패를 면했다. /연합뉴스